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가대개조 프로젝트가 두 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현 총리의 유임 결정 및 개각대상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신상탈기식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속 터지는 인사난맥상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 대상자들의 일부가 인사청문회에 불려나가는 차라리 제안 받은 직책을 반납하겠다는 인식과 태도이다. 그들에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고위공직은 '가문의 영광' 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망신' 을 자초할 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만 하고 달려왔던 기성세대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고위공직 거부하는 이들의 속내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이자 사회적 명예보다는 사생활의 노출을 꺼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을 수행할만한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일반국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태의 한 단면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른바 압축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외면해온 것에 대한 필연적인 과보라는 생각도 든다. 후보자들의 중도하차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국무총리관 직책은 옛날로 말하자면 '만인자상(萬人之上) 일인지하(一人之下)' 로 불리던 재상(宰相)에 해당할 것이다. 오직 임금 한사람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뒷자리를 가리키는 말 그대로 최고위 관직이었다. 그런 만큼 재상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 가 아니었을 뿐더러 입신양명(立身揚名)을 꿈꾸던 모든 선비들에겐 선망의 대상 그 자체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처럼

높은 벼슬을 주저 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선 후보자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국무총리와 같은 고위직의 제안도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과 가족 및 주변 친지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한 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리를 권유받은 사람들이 직책의 수락을 고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사회적 명성이 높거나 학문적 위상이 높은 사람들이 되고 보니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조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역을 함을 호소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는데 유독 고위공직자들에게만 현실에 맞지 않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회적 예나지 낭비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이란 말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다고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고위공직자를 선택하는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사회적인 공동가치의 모색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출세 욕구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발상의 전환은 곧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와 같은 우리들의 소박한 바람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도록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사청문회는 없어져야 할 제도가 아니라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장치로 거듭 나야 하리라고 본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다시 '1000호 결사' 시작한 현대불교

지령 1000호,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한 본지(本紙)가 지령 1000호를 맞았다. 본지는 지난 20년 동안 주간 신문으로는 드물게 한 주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발행해 왔다. 매 호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그리고 중도적 시각과 중생교화 방편에 입각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창간호의 사설을 통해 '가르침으로 한마음 될 때까지' 매진할 것을 서원한 본지에게 불자 개인의 신행과 삶에 대한 문제에서 사회와 국가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와 대안을 제공하며 독자들의 동반이 되어 왔다. 이러한 본지의 행보는 신문이라는 방편을 통해 정토구현 결사(結社)를 주도해 간다는 신념이었다. 매주 현대불교를 읽으며 신행을 가꾸어 온 수많은 독자들이 소중한 결사대중이다. 지령 1000호를 맞는 본지의 소감은 '좋은 점을 살려 더욱 좋은 신문을 만들자'는 것이다.

언론의 변화도 빠르고 역동적이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 시대에 주간신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더구나 불교계의 언론 환경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열악하다. 불자들의 신문 구독률은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익구조 자체가 불안정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본지는 인쇄매체를 통한 소통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불교적 정서 속에서 그 장점을 잘 살리면 그야말로 '황금알' 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기능을 뉴스 전달, 비판과 대안제시, 견제와 조정이라 말한다. 거기에 현대불교는 전법과 교화라는 기능을 더하고 있다. 전법과 교화의 사명은 매일 일의 '전도선언'과 본지의 존재 이유다. 부처님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펼치라"고 하셨듯이 본지도 매 호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읽을거리로 감동과 공감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급박하게 변화가는 세상에서 불교전문 신문은 마땅히 자각과 성찰 그리고 대중정신의 실천을 이끌어 가야한다. 중생계에 이롭지 않은 신문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감의 중요한 척도는 독자들의 호응이다. 좋은 기사를 격려하고 잘못된 기사를 지적하는 독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없이는 언론을 통한 정토실현 결사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시대가 바뀌지 않았는가? 쌍방향 소통이 없는 언론은 보살도 실천의 견인차가 될 수 없는 시대다. 독자들의 무한한 사랑이 본지의 1000호를 이끌어 준 힘이다. 따라서 앞으로 1000호를 1000번 만들어 일체중생이 성불의 문을 열 때까지 본지는 독자들의 마음 자리에서 법등을 켤 것이다. 독자 제현이 우리의 언론 결사에 동참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전법교화는 본지의 존재이유

1000호 발간삼야 새 언론 틀 구축

“독자 마음에 법등 밝히자” 재 다짐

수많은 현장 기사와 기획, 다양한 포교사업과 문화 이벤트, 다종교간 갈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과 인터넷 시장의 선구적 개척과 방화제시 등 '현대불교'의 이력 속에는 21세기 한국불교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제 본지는 새로운 1000호의 역사를 장엄하기 위해 걸어 온 발자국 속에서 보석같은 경험을 찾아내 더욱 빛나게 세우고, 변하는 시대상을 따라 새로운 언론의 틀을 구축해 갈 것이다. 이는 정토를 향한 결사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또 한 번의 약속이다. 불교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더 없이 많음'을 의미한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그렇고 '삼일 닦은 마음이 천년의 보배'라는 계승이 그렇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에 놓여 있듯이

발언대

달라이라마 방한 이뤄질 것인가?

불교계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으로 구성된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는 7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진회 발대식과 달라이라마 방한 선포식을 열고 2016년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서명운동과 대법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방한은 당위성의 문제



현각 스님 추진위 집행위원 (원주 성불원 주지)

지난해 10월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8차례 회의를 거쳐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가 결성됐다. 알다시피 8월에는 교황이 방한한다. 교황은 국민대우를 받고 며 관련 경비 등이 국고 지원된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종교지도자로서 누구는 방한할 수 있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종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중국 눈치를 보며 달라이라마 방한을 불허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국이 한국의 내정간섭국인가? 국가는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때 내야하고 자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달라이라마는 평화주의자이며 노벨상 수상자다. 한평생을 평화와 자비의 화신으로 살아오신 분의 가르침을 생전에 듣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다. 그런 그가 갈등많은 한국에서 누구나 평화롭게 살면 그에게 최고의 가치라며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다. 교황은 제도로서 만들어 뒀던 분이지만 달라이라마는 70년 넘게 끊임없이 수행해온 분이다. 그에게서 나온 메시지나 에너지는 대단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한이 성사될까 의문을 두는데 이는 당위성의 문제다. 되나 안 되나의 문제가 아니다. 안 되더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면 하는 것이다.

달라이라마 역시 방한 고대



진옥 스님 추진위 집행위원 (여수 석현사 주지)

달라이라마는 신라시대 무상 스님이 티베트에 불교를 전해줬다면서 평소 한국을 형님 불교 국가로 칭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대승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한국에 자리잡고 있는지도 보고 싶어하신다. 예전에 고려대장경 판본을 보여드린적이 있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감탄하셨다. 이어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장경각을 꼭 참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중국과 티베트, 남한과 북한 등 정치적 이유로 민족 자주권 실현이 어렵다는 동병상련역시 존자께서 한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다. 지난 20년간 수차례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역시 주변에서는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내주셨냐며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상황은 항상 변한다. 어떤 것도 똑같이 머물러있지 않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과 대화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책 역시 변하고 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방한 여론을 형성해가는 등 차근차근 이에 관련 준비를 해갈 것이다.

불자들 한마음 돼야 가능해



박광서 교수 2011년 방한준비위원장 (서경대)

당시에는 국내 불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거부감을 나타냈다. 내부의 역량이 부족한데다, 외부 압력을 못견뎠기 때문이다. 종단은 정부의 압력, 정부는 중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 이번 교황의 방한을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불교와 다르게 가톨릭은 전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불교는 나라마다 종단이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에 비해 응집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한국불교 발전에는 큰 자극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 스님들이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스님이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지언정, 한국불교 발전에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리적이다. '성승이면 어떻고 티베트 스님이면 어떤가. 올바른 스님이면 환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생에게 한 걸음 더 나와야겠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자극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다. 역대로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왔다. 이런 기초에서는 불교계가 하나로 뭉쳐야 방한이 가능할 것이다.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백중 천도재. ▶ 초재: 7월 9일(음. 6. 13, 수), 쌍계사 방장 고산큰스님. ▶ 2재: 7월 14일(음. 6. 18, 월), 조계종 대종사 성우큰스님. ▶ 3재: 7월 19일(음. 6. 23, 토), 조계종 대종사 불심 도문큰스님. ▶ 4재: 7월 25일(음. 6. 29, 금), 조계종 대종사 현해큰스님. ▶ 5재: 7월 30일(음. 7. 4, 수), 봉선사 조실 월운큰스님. ▶ 6재: 8월 7일(음. 7. 12, 목), 조계종 대종사 압도큰스님. ▶ 막재: 8월 10일(음. 7. 15, 일),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밀허스님. ※ 백중 천도재 동참하신 분께는 회주 無一 우학스님의 금강경 CD와 천도 법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 053-474-8228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탈 종 공 고. 위 사찰과 위 2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재)대한불교일부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신제품 MSN Glucoid & Omega3 Cream.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ml x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